

#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에 對한 研究

金 元 石

## 目 次

- |   |   |
|---|---|
| 1. 序 言  | 4. 封禁이 폐지된 時期 朝鮮人들의 移住(1881年~1931年 8月)    |
| 2. 19世紀 40年代이전 朝鮮人의 遷入에 對한 見解                             | 5. 東北이 陷落된 時期 朝鮮人들의 移住(1931年 9月~1945年 8月) |
| 3. 封禁이 늦추어진 時期 朝鮮人들의 이주와 中國 朝鮮族 초기歷史의 시작(19世紀 40年代~1880年) | 6. 聯關性問題                                  |

## 1. 序 言

中國朝鮮族의 遷入史는 19世紀 40年代부터 시작하여 東北地區에 對한 淸朝政府의 封禁이 늦추어진 時期, 封禁이 폐지된 時期와 東北이 陷落된 時期를 거쳐 1945年 日帝가 投降할 때까지 모두 100여년의 時間을 거쳤다.

本文에서는 首先 19世紀 40年代이전에 中國으로 移住한 朝鮮人들의 歷史는 지금 中國朝鮮族의 遷入史범주에 屬하지 않는다는 筆者의 見解를 요약하여 說明한 다음 上述한 各個 時期에 近, 現代朝鮮人들이 中國으로 移住한 歷史를 概括적으로 敘述하고 分析함으로써 中國朝族遷入史의 概貌, 特點 및 其他 連貫性 問題에 對하여 研究討論하려 한다.

## 2. 19世紀 40年代이전 朝鮮人의 遷入에 對한 見解

19世紀 40年代이전의 古代歷史를 놓고 보면 여러가지 歷史原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中國境內에 移住한 朝鮮人들이 많았다. 예하면 漢나라 時期, 唐나라 時期, 遼나라 時期, 元나라 時期, 明나라 時期, 淸나라 前期와 中期에 많은 朝鮮人들이 中國에 移住하여 와 살았다.

移住類型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自由로 移住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俘虜거나 피랍치자로 이주해왔다.

明末淸初이전에 中國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朝鮮人들은 주로 두가지 면에서 變化를 가져왔다.

첫째, 그들 중의 一部分이 戰亂 등 여러가지 歷史原因으로 朝鮮半島로 되돌아 갔다. 예하면 元朝末期 明朝初期에 戰亂으로 말미암아 많은 朝鮮人들이 朝鮮半島로 되돌아갔는데 當時 遼東에서 朝鮮으로 피난간 漫散軍과 그 가족 4,200여戶가 慶尙道 등 네개 道에 安置되었다.<sup>1)</sup> '推刷' 혹은 '贖面'의 對象으로 朝鮮에 돌아간 朝鮮人들도 있었다. 예하면 忠烈王 23년(1297年) 元朝政府에서 '사신을 遼陽路에 파견하여 기미년 이후 俘虜되었던 자들과 流民들을 調査하여 돌려보냈는데 모두 350戶였고'<sup>2)</sup> 恭愍王 8年 '遼瀋地域의 流民 2,300여戶를 西北의 各郡과 縣에 安置했는데 官家에서 生活必需品을 대여주었으며'<sup>3)</sup> 1274년부터 1347年 사이의 70여년간 高麗政府에서는 '推刷'의 方法으로 中國境內의 高麗人을 28차나 되찾아갔다.<sup>4)</sup> 또 1637年 '俘虜되었거나 납치되어온 男女數萬名'이 瀋陽南門城에 집거하고 있을 때 李朝政府는 이 사람들을 贖還하는 活動을 벌였다.<sup>5)</sup>

둘째, 遼東地區를 中心으로 한 中國의 東北과 關內에 繼續 남아 있는 朝鮮人들은 長期間 當地의 漢族, 滿族 등 여러 民族과 雜居, 通婚하는 가운데서 漸次 他民族에 同化되어 그 자취를 감추었다.

- 1) 《李朝太宗實錄》，卷一，壬午二年九月丁酉。
- 2) 《高麗史》，卷三十一，忠烈王二十三年，四月條。
- 3) 《高麗史》，卷三十九，恭愍王八年，十一月條。
- 4) 朴真奭著，《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pp. 62. - 63.
- 5) 《瀋陽狀居》，《瀋陽日記》

1627年 ‘江華島之盟’이 締結되면서부터<sup>6)</sup> 19世紀初葉에 이르기까지의 200여년 사이에 淸朝政府和 李朝政府에서는 모두 鴨綠江과 圖們江을 사이두고 封疆封禁政策과 封疆鎖國政策을 嚴格히 實行하였다. 이 時期 淸朝政府는 점차 東北地域에 封禁政策을 實行하였는데 外族의 遷入을 嚴禁하였다. 이 時期 明末淸初에 淸軍에 의해 납치되어 온 朝鮮人들중 一部가 繼續 東北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외(이 부류의 사람들은 후에 모두 他民族共同體에 溶해되어 消失되었다) 또 邊境綫에서 朝鮮人들이 越江, ‘潛入’하는 事件이 이따금씩 發生하였다. 이 時期에 秘密里에 越江한 事實들은 基本적으로 朝鮮邊民들이 ‘朝耕暮歸’, ‘春耕秋歸’한 事實들이었으며 강을 건너와 땔나무를 하고 伐木하고 珍珠를 채집하고 人蔘을 캐고 사냥을 하고 사사로이 밭을 일군 후 되돌아간 事實들이거나 또는 淸朝政府에서 越江한 朝鮮人들의 밭을 짓밟고 가옥을 마스 후 國境밖으로 쫓아버린 事實들이었다. 이런 事實들은 모두 短期的인 過境行爲였지 完全形態에서의 遷入 정착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 해서 이 時期에 越江한 朝鮮人들 중 完全한 정착생활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時期 一部 사람들은 越江한 후 中國東北에 남았지만 그 중 어떤 사람들은 ‘胡人家’에 얽혀 살았거나 ‘養子’로 들어가서 살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旗地나 官家の 莊園에서 農奴로 되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 수효가 많지 않았고 後에는 모두 他民族에 同化되어 民族의 固有한 特徵을 잃어버렸다.

文獻資料와 實際調查情況에 비추어 보면 17世紀初葉부터 19世紀初葉까지의 200여년간의 封疆封禁時期에 封禁令을 어기고 東北地區에 들어와 뿌리 박고 정착한 조선인들은 元나라때로부터 明清交替時期에 이르는 사이에 中國에 이주하여 산 朝鮮人들에 비하면 그 수효가 극히 적었으며 역시 자기 民族의 特徵을 간직한 後代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였다.

最近年間 中國의 學術界에는 지금 中國朝鮮族의 遷入起點問題에 對하

6) 《李朝實錄》, 仁祖實錄, 卷二, 仁祖五年丁卯二月辛丑條.

여 여러가지 說이 있는데 그 중 ‘明末清初’說과 ‘19世紀中葉’說이 큰 영향력을 띠고 있다.

‘明末清初’說은 지금 中國의 河北省 靑龍縣, 遼寧省 本谿縣과 遼寧省 蓋縣의 일부 ‘朴氏居民’ (1982年이후에 最初 선조의 ‘血統’에 따라 族籍을 朝鮮族으로 고친 사람들로서 그들 중에는 大量的 漢族과 滿族姓氏가 포함되어있다-筆者注)의 선조가 바로 明末清初에 中國에 遷入한 最初의 中國朝鮮이라고 認定하고 지금 中國에서 사는 조선족의 歷史起點을 明末清初 즉 17世紀初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sup>7)</sup> 세개 縣 ‘朴氏居民’이 모두 明末清初에 朝鮮半島로부터 中國에 遷入해왔다는 見解는 아직 明確한 根據가 없으므로 正確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朴氏居民’이 中國에 遷入한 時期問題에 對하여 ‘明末清初遷入’說외에 ‘元나라 時期遷入’說, ‘遼나라 時期遷入’說이 있는가 하면 또 ‘朴氏居民’은 高麗 時期에 中國에 遷入하였으므로 ‘高麗人의 後裔’라는 說과 ‘朴氏居民’은 조선반도에서 遷入한 사람들이 아니라 高句麗때로부터 지금의 中國境內에서 산 ‘高句麗의 遺民’이라는 說 등이 있다.<sup>8)</sup> 그러므로 ‘朴氏居民’이 中國에서 산 最初의 時期問題에 對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깊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그럼 일부 學者들의 見解에 따라 ‘朴氏居民’이 明末清初에 朝鮮半島로부터 中國에 遷入하였다고 하자. 그래도 ‘朴氏居民’이 中國에 들어온후의 歷史흐름을 보아야 한다.

其實 中國에 遷入한 후의 ‘朴氏居民’의 最初의 先祖는 4~5명밖에 안되는 朝鮮人에 不過했다. 이 몇명 밖에 안되는 조선인들은 中國의 세개 縣에 갈라져 있으면서 350여년간의 긴긴 歲月속에서 滿族, 漢族共同體에 분할·포위되어 끊임없이 滿族, 漢族과 雜居, 通婚하는 가운데서 처음

7) 延邊大學民族研所編, 《朝鮮族研究論坐》.(1)

8) 《朴氏居民》에 對한 延邊歷史研究所의 《調查材料》, 延邊大學編, 《朝鮮學研究論坐》.

부터 他民族共同體 內의 成員으로 同化되어버렸다. 그러므로 筆者는 現有的 世居 縣의 '朴氏居民'을 滿族, 또는 漢族의 後裔, 또는 처음부터 他民族으로 同化되었다는 意見이 事物의 本質과 事實의 眞狀에 符合한다고 認定한다. 그리고 中國에 遷入한 後의 '朴氏居民'의 最初의 先祖는 古代朝鮮民族의 成員으로서 近, 現代朝鮮民族의 成員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200萬 中國朝鮮族과 比較하면 거리가 멀다는 點도 應當 考査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明末清初를 지금 中國朝鮮族의 歷史起點 또는 遷入의 起點으로 하는 것은 妥當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만일 지금 政策이 이미 同化된 '朴氏居民'의 漢族成分을 朝鮮족으로 改籍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應當 族籍을 고친 그날을 그들의 '朝鮮族' 歷史의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應當 考査해야 할 것은 '朴氏居民'의 '朴氏性' 또는 '천분의 零點몇의 朝鮮人血統'을 主要根據로 그들의 民族成分을 고친것은 科學的이 못된다는 것이다. 問題는 그들의 族籍을 고쳐줄 때 그들의 最初의 先祖의 血統이 이미 漢族 또는 滿族의 血統으로 變했다는 이 歷史事實과 그들이 벌써 朝鮮民族의 特徵을 喪失했다는 이 歷史事實, 그리고 古代朝鮮民族과 近, 現代朝鮮民族은 民族素質上 顯著한 차이가 있다는 問題를 考慮하지 못했다는 그 點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民族特徵이 民族을 識別하는 主要根據와 主要標準으로 되지 않고 있다. 民族을 識別하는 事業은 嚴肅한 일로서 만일 處理를 잘못하면 民族의 成分과 그 民族의 特徵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情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되면 社會에 不良한 影響을 줄 수 있고 學術界에도 不必要한 爭論을 引起시키게 되며 民族事業에도 莫大한 困難을 갖다 줄 수 있다.

지금의 200萬 中國 朝鮮族은 朝鮮半島의 朝鮮民族成員 中의 一部分이 特定된 歷史時期에 中國에 移住하여 漸次 中國의 少數民族으로 形成된 中國의 56개 民族 中의 一員이다. 지금의 中國 朝鮮族은 古代로부터

中國에 遷入한 朝鮮사람들이 아니고 또 古代로부터 中國境內에 들어와서 居住하면서 中國의 여러 民族에게 同化된 朝鮮인들의 後代도 아니며 더구나 古代로부터 中國 땅에서 살아 온 토착민족도 아니다.

우리가 中國朝鮮族의 遷入史를 研究하는 것은 바로 中國의 少數民族으로서의 지금의 200萬 朝鮮族이 中國에 遷入한 特定한 歷史時期를 研究하는 것이지 自古로 朝鮮사람 또는 朝鮮민족이 中國境內에 들어와 산 전반 歷史를 研究하거나 처음부터 다른 民族에 同化되어 朝鮮민족의 同質性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古代朝鮮人들의 移民史를 研究하는 것이 아니다.

古代歷史에서 朝鮮사람들이 지금의 中國境內에 이주했거나 來往한 것은 지금의 中國 朝鮮族共同體의 形成歷史와 直接的인 關係가 없으므로 朝鮮사람들의 流移民史범주에 넣고 따로 研究하여야 한다. 지금의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는 一般的인 朝鮮인들의 流移民史와 共同한 點도 갖고 있거니와 不同한 點도 갖고 있다. 그는 전반 朝鮮인 또는 朝鮮민족의 流移民史의 重要한 造成部分이기도 하고 또 中國朝鮮族共同體의 形成에 近, 現代朝鮮民族의 人口와 近, 現代朝鮮民族의 집거구를 直接 提供한 特定된 歷史時期의 朝鮮人들의 이주사이기도 하다. 때문에 朝鮮사람 또는 朝鮮민족이 中國에 移住한 전반 移民史를 모조리 中國朝鮮族의 遷入史에 귀결시켜서는 안 되며 또 中國古代史에서 이미 他民族에게 同化된 古代朝鮮民族成員들이 中國으로 移住한 歷史의 起點을 近, 現代朝鮮民族의 移住民과 그 後裔들로 이루어진 지금의 200萬 中國朝鮮族의 歷史 起點 혹은 遷入의 起點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中國朝鮮族의 遷入史는 近, 現代朝鮮族成員들의 移住史인것 만큼 무릇 朝鮮사람들이 어느 때 中國에 들어왔으며 그때를 中國 朝鮮族의 遷入의 最初年代로 삼아 中國 朝鮮族의 遷入起點을 古代의 어느 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研究하는 것은 科學的이 못 된다.

물론 朝鮮人들이 中國으로 移住한 전반 移民史를 研究할 때에는 朝鮮

人들의 古代移住와 近, 現代移住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도 포함하여 研究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를 研究할 때에는 그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朝鮮人의 流移民史 또는 中韓·中朝關係史범주에 넣어 研究할 수도 있고 또 中國 朝鮮族의 歷史범주에 넣어서 研究할 수도 있지만 朝鮮人들이 古代로부터 中國에 移住한 전반 移民史를 다 포함시켜 研究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現有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는 다만 전반 朝鮮인 移民史의 後期에 屬한 移民史로서 전반 朝鮮人 移民史의 全體가 아니고 그의 一部分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朝鮮人들이 古代로부터 中國에 移住한 전반 移民史와 지금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를 同一한 研究課題로 보지 말고 갈라 보아야 할 것이다.

### 3. 封禁이 늦추어진 時期 朝鮮人들의 이주와

#### 中國 朝鮮族 초기歷史의 시작(19世紀 40年代-1880年)

19世紀 40年代부터 1880年 사이의 이 時期는 비록 時間이 짧았지만 이 때에 中國 朝鮮族의 漸次的 形成에 토대가 닦아졌으며 中國 朝鮮族 初期歷史의 眞正한 시작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첫째, 이 時期는 東北地區에 對한 封禁令이 漸次 늦추어지고 폐지되던 時期였고 隣國인 朝鮮의 封疆鎖國政策도 늦추어지고 漸次 解除되던 時期였으며 淸朝政府에서 遼寧과 吉林省의 東南部에서 移民實邊政策을 실시하기 시작하던 時期였다.

둘째, 東北地區에 對한 淸朝政府의 封禁이 늦추어지고 淸나라와 朝鮮의 地方官吏와 官兵들이 朝鮮人들의 移住를 漸次 默認하였기에 朝鮮人들이 中國東北地區에 移住하여 長期間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條件이 初步的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時期 朝鮮人들의 移住는 中國 朝鮮族共同體의 形成에 近代朝鮮民族의 成員과 近代朝鮮民族의 집거구를 提供하였다.

셋째, 近代歷史에서 中國公民權을 얻어 中國의 初期朝鮮族成員으로 된 사람들은 바로 이 時期부터 中國東北地區에 移住해 온 古, 近, 現代 朝鮮民族成員들 중에서 產生되었다. 後에 中國國籍에 加入하는 朝鮮인들이 漸次 많아져 中國歷史에서 重大한 影響을 일으키는 한개의 民族實體로 자라났다. 이런 情況 下에서 中國政府는 그들을 中國의 한개 少數民族共同體—朝鮮族으로 正式 認定했다.

넷째, 社會歷史調查에 따르면 지금의 中國朝鮮族은 19世紀 40年代부터 1945년까지의 100여년사이에 朝鮮半島로부터 中國에 遷入한 朝鮮인과 그 後孫들이다. 그들은 지금 人口가 200萬까지 늘어났으며 여전히 濃厚한 近, 現代朝鮮民族의 同質性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지금 中國에서 사는 200萬 朝鮮族의 歷史는 古代에 中國에 移住하여 生活한 朝鮮사람들처럼 他 民族에게 同化된 歷史가 아니라 自己의 民族血統과 民族特徵을 基本적으로 확보해 온 歷史이며 하나의 민족실체로 生存하여 延續된 歷史인 바 이 歷史의 시작이 바로 19世紀 40年代이후의 封禁令이 늦추어진 時期였다.

社會調查에 의하면 지금 中國 朝鮮族의 先祖 중 1850年 前後에 中國에 移住한 朝鮮인이 가장 이른 近代朝鮮移住民이었다.<sup>9)</sup> 文獻資料의 記載에 의하면 封疆封禁이 늦추어진 時期에 들어선 후부터 朝鮮인들이 中國東北地區에 移住하여 자리잡고 살 수 있는 社會環境이 初步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約 1845年 이후로부터 해마다 中國東北地區로 移住하는 近代朝鮮移住民들이 있게 되었으며 少量의 移住로부터 19世紀 60年代에 와서는 대량적으로 移住하는 熱潮가 形成되었다.

1845年 朝鮮 鍾城郡 朱北面 龍田洞의 李鍾昊 등 10여명 사람들이 臨江縣 境內에 移住하여 자리잡고 살았으며 1846年 朝鮮북부의 開墾民들이 渾江流域에 와서 농사를 지었으며 1848年 李應三등 朝鮮 開墾民들이 圖○江을 건너 尙義社 四甲 魯陽洞에 와서 자리잡고 살았다. 또 1849年

9) 延邊歷史研究所의 《調查資料》, 本人의 《調查資料》 등 참조.

조선 忠淸郡의 農民들이 圖們江이북 이도동에 와서 살았고 1850년에는 조선 개간민 21명이 二道洞부근의 七道溝에 이사왔으며 1852년에는 조선 咸鏡南道 端川郡의 貧民 10여명이 圖們江이북의 로령지방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 19世紀 50年代에 圖們江이북지구의 海蘭江流域과 琿春 등지에는 朝鮮 開墾民들이 이주하여 와 밭을 일구고 몇개의 部落을 이루었다. 1860년부터 1870年 사이 조선 북부지구에 嚴重한 自然災害가 連續드는 바람에 조선북부의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향을 떠나 강을 건너 東北地區로 移住하여왔다. 1861年 조선 북부지구의 일부 이재민들이 安東縣 삼도랑두에 와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 해에 또 적지 않은 조선 邊民들이 渾江流域에 移住하여 와 漸次 部落을 이루었다.<sup>10)</sup> 1860年 前後부터 1870年사이에 大量의 朝鮮人들이 鴨綠江 以北地區에 이주하여 와 살았는데 輯安縣에는 벌써 1000여호의 조선 이주민이 자리잡고 살았으며 臨江, 輯安과 渾江 양안의 산간지대에서 살고 있던 주민은 거의 다 조선 빈민들이었으며 이미 수십개의 部落을 形成하고 있었다.<sup>11)</sup> 圖們江 이북지구에 이주하여 자리잡고 산 조선사람 인원수도 신속히 늘어났다. 1866년 12월 조선 慶源府 阿山嶺의 조선 기민 70여명이 越境하여 琿春에 移住하였다.<sup>12)</sup> 1867年 3月 琿春과 蘇聯이 잇대인 곳에 와서 살고 있던 조선 이재민들이 1000여명이나 되었다.<sup>13)</sup> 1869年 10月 조선 慶興府 阿吾地의 사람들도 中國 境內에 大量으로 이주하였다.<sup>14)</sup> 1869年과 1870年 사이에 조선 會寧府使는 이재민들을 救濟하자고 朝廷에 간청하였으며 조선의 기민들이 延邊과 沿海州로 大量 이주하는 것을 默認했다.<sup>15)</sup>

- 
- 10) 《中國朝鮮族遷入史資料彙編》, 《韓國流移民史》, 宋教仁著《間島問題》, 《中國朝鮮族遷入史論文集》, 《朝鮮族簡史》와 일부 地方史資料를 참조.  
 11) 崔宗范著, 《江北日記》, 1872年版.  
 12) 《李朝實錄》, 高宗實錄, 卷一, 六年四月二十九日.  
 13) 《通文館志》, 卷十二, 紀年.  
 14) 《李朝實錄》, 高宗實錄, 卷一, 七年十月二十一日, 二十二日.  
 15) 玄圭煥著, 《韓國流移民史》, 上, pp. 136.-137.

이 時期에 一部分의 朝鮮인들이 黑龍江省에 이주하여 자리잡고 살았다. 1867年 一部 朝鮮 開墾民들은 러시아의 沿海州를 거쳐 黑龍江 支流인 빠베리하와 大公河流域 및 烏雲, 孫昊, 아이훈 등지로 移住하였다. 1880年 一部 朝鮮人들은 沿海州로부터 饒河 義順號(지금의 大河鎮)로 이사하였다.<sup>16)</sup>

封禁令이 늦추어진 이 時期에 鴨綠江 이북으로 移住한 朝鮮 이주민들은 大部分이 鴨綠江 上流에서 강을 건너 후 집안을 中心으로 長白, 臨江 등 邊外北路에 자리잡고 살았으며 一部分은 鴨綠江 이북의 기타 지구에 흩어져 살았다. 圖們江 이북에 移住한 朝鮮 이주민들은 주로 圖們江 북안지구에서 자리잡고 살았다. 상대적으로 보면 圖們江 이남에서 직접 環春境內에 자리잡고 산 사람들이 많았다. 동시에 19世紀 60年代부터 朝鮮의 가난한 사람들이 멀리 북만의 東部邊境과 北部邊境 지대로 이주했지만 그 인원수가 극히 적었다. 이 時期 北滿으로 移住한 經路를 보면 鴨綠江과 圖們江을 건너 南滿 혹은 東滿을 經由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沿海州를 거쳐 烏蘇里江을 건너서 이주했다.

文獻資料의 記載과 筆者의 分析에 의해 보면 봉금이 늦추어진 時期 東北地區에 移住하여 자리잡고 산 朝鮮사람들이 約 2萬名 좌우인데 그 중 延邊에 자리잡고 산 사람이 1萬名 좌우에 달했다.<sup>17)</sup> 그들 중에 大部分은 朝鮮의 咸鏡南道 咸鏡北道와 平安南道 平安北道の 이주민들이었다. 이 時期에 압록강과 圖們江 북안지구에서는 朝鮮민족의 小型村落과 小型集居區가 初步的으로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世紀 80年代부터 시작된 中國 朝鮮族共同體의 形成에 近代朝鮮民族의 人口와 近代朝鮮民族의 집거구를 提供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다.

16) 黑龍江省民族研究所編, 《黑龍江朝鮮族》.

17) 韓俊光等編,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 참조.

## 4. 封禁이 폐지된 時期 朝鮮人들의 移住(1881年—1931年 8月)

## (1) '韓日合併'前 朝鮮人들의 移住(1881年—1909年)

1881年, 清朝는 東北地區의 中朝邊境一帶에 對한 封禁政策을 完全히 폐지함과 더불어 東北地區에서 移民實邊政策을 實行하였는데 當時 關內의 移住民들 뿐만 아니라 朝鮮移住民들게도 東北을 開放함으로써 朝鮮의 貧民들이 中國에 移住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또 끌어들이 수 있는 많은 優待정책을 實施했다. (물론 朝鮮開墾民들의 移住에 불리한 政策들도 있었다. 예하면 民族同化政策을 實行하고 어떤 곳에서는 朝鮮민들이 入籍權과 土地所有權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南滿地區에서 清朝政府는 朝鮮의 貧困한 農民들이 이 地區에서 居住權과 生存權을 가지는 것을 承認하였으며 1883년에는 朝鮮과 '奉天與邊民交易章程'을 체결했는데 이는 客觀的으로 朝鮮邊疆주민들이 中國東北에 移住하는데 有利한 條件을 마련해 주었다. 延邊地區에서 敦化知縣의 設置, 朝鮮開墾民 專門開墾區의 劃定, 越墾局과 墾荒社의 建立, 朝鮮移住民이 일군 황무지에서 5年동안 稅를 받지 않는다는 등 規定과 朝鮮開墾民이 入籍權과 土地所有權을 가질 수 있다는 特殊規定은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朝鮮貧民들에 對해놓고 보면 強烈的 吸引力이 아닐 수 없었다.<sup>18)</sup>

1905年 日帝가 朝鮮政府를 逼迫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 朝鮮사람 李相高, 李東寧 등 反日愛國人士들이 延邊에 와서 龍井村에 瑞甸書塾을 꾸리었다. 그 후부터 政治上의 原因으로 朝鮮의 義兵과 愛國人士들이 繼續 中國의 東北地區에 와서 反日活動에 從事하였다. 封禁이 폐지된 후부터 1909년까지 대다수의 朝鮮이주민들이 圖們江 이북지구의 延邊과 鴨綠江 이북지구의 東邊道에 移住하여 生活하였다. 朝鮮 貧苦農民의 移住民數가 늘어남에 따라 朝鮮이주민의 居住地區는 圖們江과 鴨

18) 王魁喜等編:《近代東北史》, p. 131.

綠江의 北岸地區로부터 北部와 西部方向으로 漸次 擴張되었다. 朝鮮移住民들중의 一部는 東邊道와 延邊地區를 거쳐 南滿北部, 中滿과 北滿地區로 移住해 갔다. 延邊으로의 朝鮮人들의 移住는 直接 朝鮮에서 圖們江을 건너 해주한 외 더러는 러시아의 시베리아로부터 해주해 왔다. 1907年의 調查에 따르면 延邊境內에서 산 朝鮮이주민들 중에서 10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은 시베리아로부터 移住해 왔었다.<sup>19)</sup> 1910年 이전에 동변도와 南滿北部, 中滿에 살던 朝鮮 이주민들의 原적지는 주로 平安道와 南韓이고 東滿과 北滿에 살던 朝鮮 이주민들의 原적지는 大部分이 咸鏡道였다.

東邊道地區의 人口密度가 크고(封禁令이 解除된 후 關內와 遼東으로부터 많은 漢族이 이사해 왔다) 耕作地面積이 적고 또 奉天當局에서 朝鮮이주민의 土地所有權을 허용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原因으로 이 時期에 적지 않은 朝鮮開墾民들이 東邊道를 떠나 內地로 이사해 갔다. 하여 동변도의 移住民數가 延邊地區의 人口처럼 많이 늘어나지 못했다. 1897年 通化, 桓仁, 寬甸, 興京(지금의 新賓) 등지에 居住하고 있던 朝鮮변강주민들이 8,722戶에 3萬7,000여명이었고<sup>20)</sup> 1902年 東邊道の 朝鮮이주민은 4萬3,565명이었으며 1904년에는 9,940戶에 4萬4,580명으로 늘어났지만<sup>21)</sup> 1909년에는 19,754戶에 4萬4,993명으로 밖에 늘어나지 못했다. 1893년에 延邊에서 살던 朝鮮開墾民은 約 8,000戶에 3萬여명이었는데 1904년에는 5萬여명으로 늘어났다.<sup>22)</sup> 1907년에는 延邊에 居住한 朝鮮이주민이 7萬3,000명이었는데<sup>23)</sup> 1908년에는 9萬1,000명, 1909년에는 98,500여명으로 늘어났다.<sup>24)</sup> 여러가지 資料를 綜合 分析한데 의하면 1894

19) 《日本外交文書》，明治四十一年七月十七日電，《間島之由來》，pp. 353.-354.

20) 《中國旧約章彙篇》，第一冊，p. 403.

21) 牛丸潤亮，村田懋磨著：《最近間島事情》，1927年版.

22) 《延吉廳同知呈所管各事宜選具清冊》등 참조.

23) 藩茹秋著，《延邊調查實錄》.

24) 藩茹秋著：《延邊調查實錄》，牛丸潤亮，村田懋磨著：《最近間島事情》등 참조.

年 東北地區에 居住한 朝鮮이주민은 6萬5,000명에 달하였는데 1909년에 와서는 約 21萬名 좌우로 늘어났다.

‘9·18’事變이전에 中滿과 北滿地區의 朝鮮 이주민들은 南滿地區의 朝鮮이주민들처럼 一部가 ‘歸化入籍’한 외 절대다수는 土地所有權이 없었으며 심지어 땅을 부칠 權利마저 保障받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日本殖民會社와 地主의 雇傭勞動者로 들어가 여전히 壓迫과 착취를 받았다. 延邊地區에서는 清朝政府에서 비록 朝鮮이주민들에게 入籍權과 土地所有權을 주었지만(물론 條件이 있었다) 1907年 日帝가 연변을 侵入한 후부터 연변의 朝鮮 이주민들은 封建主義와 日帝의 2중 壓迫과 착취를 받았는데 그 처지는 다른 곳의 朝鮮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淒慘했다.

## (2) ‘韓日合併’後 朝鮮人들의 移住(1910年—1931年 8月)

1910年 ‘韓日合併’後 朝鮮에서는 영락한 農民數가 急激히 늘어났다. 영락한 많은 農民들은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산 설고 물 선 中國 東北地區로 끊임없이 이주해 왔다. 이와 同時에 亡國奴가 되려 하지 않는 反日愛國人士와 義兵將兵, 反日群衆들도 中國東北에 移住하여 왔다.

이 時期 奉係軍閥은 財政收入을 늘이고 軍備를 擴充하기 爲하여 淸朝의 官有地를 재여서 소작주는 동시에 招民開墾政策을 대대적으로 實行했다. 그 외 많은 官吏와 地主들도 염가로 朝鮮開墾民들을 끌어모아 논을 풀고 벼를 심었다. 日本侵略者들은 東北의 땅을 대대적으로 掠奪하고 朝鮮개간민을 모집하여 논을 풀었다. 1911年 奉天當局에서는 奉天水利局를 設置하고 여러곳에 分局을 세웠으며 ‘벼재배장려규약’을 頒布하여 朝鮮개간민이 논을 푸는것을 鼓舞하였다. 그 해 安奉鐵道의 軌道를 넓히고 鴨綠江에 鐵다리를 부설한 후 大量의 朝鮮開墾民들이 安奉鐵道를 따라 南滿, 中滿, 西滿 등 地區로 繼續 이주하였다. 그외 또 大量의 朝鮮이주민들이 圖們江과 시베리아를 거쳐 延邊과 北滿으로 移住했다. 朝鮮總督府의 統計에 따르면 1910年 9月부터 1911年 12月사이

북간도에 이주하여 자리잡고 산 조선인만 해도 1萬9,000명에 달하였다.<sup>25)</sup>

### 1910年-1918年 延邊의 朝鮮移住民 장성情況表<sup>26)</sup>

年 次	人 口	年 次	人 口
1910年	109,500명	1911年	127,500명
1912年	163,000명	1913年	161,000명
1914年	178,000명	1915年	182,500명
1916年	203,426명	1917年	220,000명
1918年	253,961명		

1910年代에 中國東北地區의 조선이주민의 人口增長速度는 비교적 빨랐다. 1910년에 東北朝鮮移住民이 約 22萬名이고 1911년에는 25萬6,900名으로, 1912년에는 27萬名으로, 1917년에는 35萬8,000名으로, 1918년에는 40萬2,969名으로 불어났다.<sup>27)</sup>

1919年 '3·1'運動後 조선의 수많은 愛國志士, 獨立軍과 反日群衆들이 中國東北에로 들어왔다. 동시에 또 大量의 破産당한 農民들이 살길을 찾아 東北地區에 繼續 밀려들었다. 1920年代의 前半期에 民國政府는 繼續하여 조선 이주민들에 對해 招民開墾, 撫墾, '歸化入籍'등 開放하고 利用하고 爭取하는 方針을 실시했다. 비록 後半期에 東北地區에서 奉係軍閥이 조선이주민들을 殘酷하게 迫害하고 驅逐하는 事件이 發生하였지만 조선사람들이 끊임없이 東北地區에로 移住하였다.

25) 《延吉廳同知呈所管各事宜選九清冊》, 《在滿朝鮮人概況》, p. 88.

26) 《延邊調查實錄》, 《最近間島事情》, 《中國朝鮮族遷入史論文集》등 참조.

27) 《在滿朝鮮人情況》, 《滿洲國現勢》등 참조.

1919年~1930年 東北朝鮮移住民과 延邊朝鮮移住民 人口장성比較表<sup>28)</sup>

年 次	東 北	延 邊	延邊朝鮮移住民數가 東北朝鮮移住民總數 에서 차지하는 比率
1919年	431,198명	279,150명	64.7%
1920年	459,427명		
1921年		307,806명	
1922年	503,000명	323,806명	64.3%
1923年	515,865명	323,011명	62.6%
1924年	528,027명	329,391명	62.4%
1925年	531,973명	346,194명	65.1%
1926年	550,000명	356,210명	61.1%
1927年	558,280명	368,827명	66.1%
1928年	577,052명		
1929年		382,405명	
1930年	607,000명	388,366명	64.0%

東邊道の 조선이주민은 여러가지 原因으로 하여 그 인구장성속도가 여전히 느렸다. 後에 奉係軍閥이 동변도일대에서 조선이주민을 대대적으로 迫害하고 驅逐하는 政策을 實施하였기에 이 地區의 조선이주민수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1921年 東邊道 8個 縣의 약 9萬명의 조선이주민들 중에서 長白, 臨江, 輯安, 寬甸 등 4個 縣에 조선이주민이 6萬9,212명이 있었고<sup>29)</sup> 1924년에 와서 東邊道 8個 縣의 조선이주민은 9萬5,780명이 있었다.<sup>30)</sup> 그러나 1930년에 와서는 東邊道の 조선이주민수가 5

28) 《滿洲國現勢》, 《延邊調查實錄》, 《最近間島事情》, 《滿洲與朝鮮人》, 《中國朝鮮族遷入史論文集》등 참조.

30) 《滿洲開拓年鑑》등 참조.

萬545명이었는 바 1924年보다 4萬5,000여명이 줄어들었다.<sup>31)</sup>

이와 달리 奉天, 鐵嶺地區와 中滿, 北滿 등 其他 地區에서는 조선이주민수가 始終 延邊 地區보다 적었지만 그 장성속도는 매우 빨랐는 바 10年代에 비해 4배 내지 5배로 늘어났다. 더우기 中東鐵道沿線과 松花江의 6대 지류지구에 선 어디에서나 막론하고 벼농사를 짓는 조선이주민의 村落을 볼 수 있었다. 1923年 中東鐵道沿線에서 살던 조선이주민만 해도 2,963戶에 1萬 1,201명이었고 1930년에 이르러서는 北滿의 조선 이주민수가 무려 4萬 4,463명에 달하였다.

1930年 東北朝鮮移住民 分布情況表<sup>32)</sup>

地 區 名	移住民數	東北朝鮮移住民들중에서 차지하는 比率
延邊地區	388,366명	64.0%
奉天, 鐵嶺地區	97,169명	16.0%
東邊道地區	50,545명	8.3%
吉林, 長春地區	24,157명	4.0%
北滿地區	44,463명	7.3%
旅大地區	1,747명	0.3%
其他地區	1,000명	0.2%

### 5. 東北이 陷落한 時期 朝鮮人들의 移住(1931年 9月~1945年 8月)

#### (1) 自由移住時期(1931年 9月~1936年)

1931年 '9·18'事變後 日本殖民主義者들은 日本國內의 '인구과잉' 問題

31) 引用日本駐東北大使館의 統計數字.

32) 同 31).

를 解決하기 爲하여, 中國의 東北을 자기들의 永久한 殖民地와 中國大陸을 侵略하는 後方基地로 만들기 爲하여 日本사람을 東北으로 移住시키기로 決定하였다. 이와 同時에 朝鮮總督府에서는 1931년에 ‘鮮人移民會社設立計劃案’을 작성하고 해마다 조선인 1萬戶, 5萬名을 東北으로 移住시켜 15年동안에 15萬戶, 75萬名을 移住시킨다고 規定하였다.<sup>33)</sup> 그 이듬해에 또 ‘滿鮮農事株式會社設立計劃’을 제정하였는데 이 計劃에서는 해마다 朝鮮人 2萬戶, 10萬名을 東北으로 移住시키며 15年동안에 30萬戶, 150萬名을 移住시키기로 規定하였다.<sup>34)</sup> 上述한 計劃의 目的은 날로 尖銳해지는 朝鮮에서의 民族矛盾을 緩和시키고 조선농민의 과잉문제를 解決하는 同時에 조선이주민을 利用하여 東北의 資源을 掠奪하고 東北에서의 自己들의 殖民權益을 保障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1931年 ‘9·18’事變後부터 1936年에 이르기까지 日本침략자들은 基本上 原計劃에 따라 조선이주민을 組織하여 中國의 東北에 移住시키지도 않았거니와 強制移民政策도 實行하지 않았다. 反對로 ‘不干涉主義’의 ‘自由移住’政策을 實施하였는데 그 原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9·18’事變이후 朝鮮族人民들을 포괄한 東北 여러 民族 人民들의 反日活動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東北에서의 日帝의 殖民主義統治秩序가 아직 完全히 確立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이주민을 直接 組織하는 問題를 考慮할 사이가 없었다. 둘째, 1929年부터 1933年에 이르기까지 資本主義世界에는 前例없는 經濟公황이 일어나 日本社會에 嚴重한 災難을 갖다 주었다. 이리하여 日帝는 經濟公황에서 벗어나며 人口 ‘과잉’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조선의 破産당한 農民들이 日本으로 移住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셋째, ‘9·18’事變이후 日帝는 國內의 경제公황에서 벗어나 더욱 큰 規模의 中國侵略戰爭을 發動하기 爲하여 경제公황을 조선에 전가시키므로써 조선의 破産당한 農民과 手工業者 人원수가 急激히 증가되게

33) 朝鮮總督府編, 《鮮人移民會社設立計劃案》, 1931年, pp. 1.-2.

34) 朝鮮總督府編, 《滿鮮農事株式會社設立計劃》, 1932年, pp. 1.-2.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國內의 民族矛盾이 끊임없이 激化되었다. 이 矛盾을 緩和시키는 가장 좋은 方法이 바로 조선의 破産당한 근로인민들을 中國의 東北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그들을 利用하여 東北의 資源을 直接 掠奪할 수도 있었다.

이로운 點이 해로운 點보다 많다고 認定한 日帝는 조선이주민들이 東北地區에 移住하는데 對해 袖手旁觀하였다. 日本은 조선인 이민사업을 直接 들어주고 進行하지 않았거니와 조선인들이 東北에 移住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이 時期에 日帝가 中國大陸에 對한 侵略을 擴張하기 爲하여 조선인민에 對한 殖民主義的 壓迫과 掠奪을 強化하였기 때문에 大量의 朝鮮農民들이 破産당하였다. 이리하여 客觀적으로 大量의 貧民들이 부득불 살길을 찾아 中國의 東北에 移住하는 局面이 持續되었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조선인들의 移住는 強制移住形態가 아니라 自由移住形態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時期를 ‘強制移住時期’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中國東北地區가 日本의 殖民地로 전락되면서 移民의 길이 더욱 열린데다가 日帝가 조선이주민들이 東北에 移住하는데 對하여 ‘不干涉主義’政策을 實施하였기 때문에 ‘9·18’事變後 數千數萬에 달하는 조선의 破産당한 農民들이 中國에 移住하였다. ‘9·18’事變이 일어난 1931년에 中國東北地區에는 조선이주민들이 63萬982명이 있었는데<sup>35)</sup> 1933년에는 68萬名 좌우로 늘어났다. 그 중 南滿地區에 19萬608名, 東滿地區에 40萬5,953名, 北滿地區에 5萬9,771名, 中·西滿地區에 約 2萬7,000名이 있었다.<sup>36)</sup> 1934年 東北地區의 조선이주민이 73萬8,000名 좌우에 달했는데 그들은 南滿地區에 21萬4,744名, 東滿地區에 42萬1,941名, 北滿地區에 7萬3,885名, 中·西滿地區에 2萬8,000名 좌우 分布되어 있었다.<sup>37)</sup> 1935년에 이르러 東北地區에 居住하고 있던 조선이주민수

35) 《滿洲國現勢》，1939年版.

36) 朴昌昱, 《試論自耕創定計劃》 등 참조.

37) 同上.

가 갑자기 82萬名 좌우로 불어났는데 1934년에 比하여 8萬여명이 늘어난 셈이었다. 이해의 分布情況을 보면 南滿地區에 24萬8,367名, 東滿地區에 45萬3,345名, 北滿地區에 8萬7,350名, 中·西滿地區에 約 3萬名 좌우였다.<sup>38)</sup> 1936年 吉林省의 조선이주민이 52萬8,000名이었는데 그 중 延邊地區에 47萬4,333名이 있었다. 같은 해에 東邊道에는 조선이주민이 8萬5,328名이 있었다. 이해 東北地區의 조선 이주민총수는 85萬4,411名에 달했다.<sup>39)</sup>

1932년부터 1936年 사이에 長圖線, 牡圖線, 牡住線, 林密線, 濱北線 등 다섯갈래 鐵道の 修築과 東滿, 北滿, 南滿 鐵道の 相互連結은 조선이주민이 北滿, 中滿 등지로 移住하는데 有利한 條件을 만들어 주었다. 이로부터 北滿, 中滿地區에 移住하는 조선이주민수가 急激히 불어났다.

日本侵略者들은 1932年 8월에 작성한 '재만조선인 이민정책요강'에 根據하여 조선이주민들에게 '統制'와 '安定'의 方針을 實行하였다. 同時에 또 이것을 爲하여 1932년부터 先後하여 '安全農村', '集團部落'과 '自作農創定' 등 政策을 실시하였다. 上述한 政策으로 하여 일부 東北朝鮮移住民들이 日本殖民會社의 小作農과 農奴로 되었는데 그들의 처지는 아주 비참하였다. 東北朝鮮移住民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創定' 또는 '安全農村', '集團部落'에 수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日本侵略者와 封建地主의 壓迫과 착취밑에서 역시 험벗고 굶주린 生活을 하였다.

1936年 4月 日本侵略者와 만주정부에서는 東邊道와 奉天, 安東 두 省의 조선이주민들을 東邊道の 16個 縣(넓은 意味에서의 東邊道는 遼寧省과 吉林省의 20個 縣을 포괄한다)에 集中시켰다.

(2) 強制的移住와 非強制的移住의 并存時期(1937年~1945年 8月)

38) 同上.

39) 《滿洲年鑑》 등 참조.

日帝는 東北地區를 中國大陸을 侵略함에 있어서의 糧穀基地와 兵站基地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滿洲農産, 日本工業'이란 두 개의 큰 經濟的 支柱를 만들려는 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여 1936年 4月 日本關東軍을 통해 '滿洲農業移民100萬戶移住計劃' 草案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1937年부터 시작하여 20年사이에 100萬戶, 500萬명의 日本人을 中國東北에 移住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同時에 上述한 目的을 實現하고 날로 尖銳해지는 朝鮮國內의 矛盾을 緩和시키기 爲하여 日本關東軍은 위 '滿洲國'을 사주하여 1936年 8月에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을 制定하게 하였다. 朝鮮總督府와 위 '滿洲國'은 이 요강'에 根據하여 移民區域을 이전의 16個 縣으로부터 南滿과 延邊의 23個 縣으로 擴大시키고 1937年부터 朝鮮이 주민을 日本移住民의 '補充力量'으로 삼아 해마다 이 23個 移民縣으로 1萬戶씩 이사시키기로 計劃하였다. 1936年 9月 朝鮮 서울과 中國 長春에 각기 朝鮮 농업이주민의 事務를 취급하는 殖民會社—'선만척식주식회사'와 東北에서의 그 分會社—'滿鮮拓植有限股份公司'를 세운 同時에 '東拓'과 '東亞勸業公司'의 土地를 접수하여 經營하였다.

日本侵略者들은 1937年부터 朝鮮總督府와 鮮滿拓植株式會社를 통해 強迫的 手段과 欺騙的 手段으로 朝鮮의 破産당한 農民들을 直接 組織하여 中國 東北地區에 移住시켰다. 1937年 滿鮮拓植有限股 公司에서는 처음으로 朝鮮 京畿道이남의 여섯개 道에서 破産당한 農民 2,500戶를 만주 間島省과 奉天省 菅口縣 管轄구에 強制的으로 移住시켰다.

'7·7'事變後 侵略戰爭에 需要되는 食糧을 解決하기 爲하여 日本關東軍 移民事務處理委員會에서 1938年 7月에 '鮮農處理要綱'을 제정하였다. '要綱'은 朝鮮이민구역을 23개 縣으로부터 39개 縣으로 擴大하며 朝鮮이주민을 集團, 集合, 分散 등 세가지 形態로 中國東北에 移住시키기로 規定하였다. 1939年 12月 朝鮮이주민수가 급격히 增加됨에 따라 原來의 朝鮮이민방안을 '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으로 고치고 全 東北地區를 朝鮮이민구역으로 規定하였다.

이 時期에 數千數萬의 조선의 貧困한 農民들이 逼迫에 못 이겨 고향을 떠나 산 설고 물 선 中國의 東北地區로 移住했다. 1938年 한해 사이 만해도 5,955戶, 2萬4,156명이 '集團移民'과 '集合移民'의 形式으로 東北에 強制移住되었다.<sup>40)</sup> 1937년부터 1939年 사이에 9,600戶, 49,600명이 '집단이민'을 하였으며<sup>41)</sup> 1941년에는 '集團移民', '集合移民', '分散移民' 방식으로 이주한 호수가 각각 3,350戶, 1,200戶와 2,967戶로서 도합 7,517戶에 달했다.<sup>42)</sup> 1937년부터 1941年 사이에 '집단이민'과 '집합이민'의 方式으로 移住한 戶가 15,617戶, '分散移民'方式로 移住한 戶數와 人員수는 8,851戶, 4萬1,322명이었는데 이 세가지 形式의 移民 總戶數와 總人員數는 24,468戶, 10萬3,361명이었다.<sup>43)</sup> 1936年 圖們과 佳木斯사이의 鐵道가 開通된 후 北滿合江地區의 조선이주민은 1936年の 1萬5,200명으로부터 1940년에는 2萬3,540명으로 늘어났으며 1939年 集梅鐵道가 開通된 후에는 많은 조선이주민들이 東邊道를 거쳐 吉海地區에 移住하였다.

일제는 1937년부터 1941年 사이에 東北에로 移住해온 조선이주민들에 對해 여전히 이전날의 '자작농창정법'을 實施했는데 2,322戶의 조선이주민들을 '自作農'으로 '創定'하였다. 日帝는 또 '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에 根據하여 이미 東北에 移住한 조선이주민들을 '開拓民幹部', '基干開拓民', '一般開拓民'과 '中堅開拓民'으로 갈라서 預備訓練을 시켰다. 1937年 11月 日本侵略者들은 吉林省 永吉縣의 江密峰에서 '鮮衣開拓訓練所'를 꾸렸는데 '滿鮮拓植會社'에서 책임지고 '개척민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고 일제에게 忠誠을 다할 수 있는 開拓村村長과 中堅分子들을 訓練하였다.'

1941年 6月, 일제는 '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에 根據하여 '滿鮮拓植有限公司'를 '滿洲拓植株式會社'에 합병시키고 그 이름을 '滿洲拓植會

40) 黑龍江省民族研究所編, 《黑龍江朝鮮族》.

41) 《滿洲開拓年鑑》, 1940年版.

42) 《滿洲拓植株式會社五年史》, p. 81.

43) 滿鐵產業調查部編, 《滿洲農業移民概況》, pp. 14.-16.

社'로 고친 同時에 '자작농창정'을 '開拓移住團'으로 고쳤다. 이때로부터 일제는 새로 온 조선이주민을 '開拓移住民'이라 이름짓고 1942년부터는 조선의 파산당한 農民들을 強制로 驅逐하여 北滿과 內蒙古의 황량한 벌판을 開墾하거나 '緊急造田區'를 일구어 벼농사를 짓게 하였다.

이 期間에 조선 남반부 각도의 수많은 빈고농들도 일제가 組織한 移民團에 編入되어 直接 北滿의 五常, 阿城, 尙志, 哈爾濱, 延壽, 方正, 通河, 木蘭, 綏化, 北安, 綏稜, 慶安, 鐵力 및 齊齊哈爾과 嫩江流域에로 移住했다. 불완전한 統計에 의하면 1937년부터 1944년까지의 8年 사이에 日帝가 조선에서 強制로 모집해 온 貧苦農民이 3萬856戶, 14萬7,344명이었다. 이런 強制移民은 1945年 日帝가 投降할 때까지 줄곧 持續되었다.

이 期間은 強制移住와 非強制移住가 並存하던 時期였다. 그 理由는 첫째, 일제가 한 시기 自由移住政策을 實施하던 때로부터 後에 와서 強制移住政策을 實施한 目的은 計劃있고 組織있게 더욱 많은 조선의 가난한 農民들을 東北地區의 여러 곳에 移住시키려는데 있었지 東北地區에로의 自由移住를 禁止시키려는데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둘째, 1937年 蘆溝橋事變 後 특히는 1941年의 太平洋戰爭이 爆發한 후 日帝는 조선에 對해 더욱 미친듯한 鎮壓과 掠奪을 감행하였다. 이는 客觀上에서 破産당한 農民들의 東北에로의 自由移住를 다그쳤을 뿐이지 強制移民政策을 實施한 후라하여 自由移住가 멈추어 진 것은 아니었다. 또 資料의 記載에 의하면 1940년에 조선의 破産한 農民들이 日帝의 強制移民政策의 속박을 받지 않고 自願적으로 中京동북지구에 '自由移住'하였는데 그 移住民數는 13萬9,053명이나 된다고 한다.<sup>4)</sup> 셋째, 이 期間 強制移民에 뽑힌 數字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의연히 中國 東北에로 繼續 移住했는 바 그 인원수가 強制移民數보다 더 많았다. 이 기간 東北朝鮮移住民數의 장성속도가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빨랐다. 1939년에 延邊에 居住하고 있는 조선 이주민이 529,193명이었고 東

邊道 8個 縣에 居住하고 있던 朝鮮 이주민이 130,526명이었으며<sup>45)</sup> 1943年에는 延邊에 居住한 朝鮮 이주민이 635,643명이었다.<sup>46)</sup> 그리고 東北地區에 居住하고 있던 朝鮮 이주민이 1938년에는 94萬9,574명, 1939년에는 106萬5,523명, 1940년에는 118萬9,000명<sup>47)</sup> 1944년에는 165萬8,572명이었으며<sup>48)</sup> 1945年, '8·15'解放직전에는 170萬명 좌우였다.(어떤 資料에서는 216萬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틀린 統計數字다) 이 수자는 1936年에 東北地區에 居住한 朝鮮이주민 總數 85萬4,411명의 2배로서 해마다 近 10萬명이 불어난 셈이다. 여기서 이 時期 人口의 自然增長數와 強制移民인원수의 수십만명은 自由移住民들이었다.

當時 日帝는 한 方面으로는 끊임없이 移民區域을 擴大한 同時에 다른 한 方面으로는 強制的 手段 또는 속임 手段으로 '集團移民', '集合移民', '分散移民'을 組織하여 이미 開拓해놓은 移民區域에 계속 移住시키는 한편 또 이주민을 組織하여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하고 편벽한 地區로 이주시켰다. 예하면 연변지구의 安圖縣에서만 해도 다섯차레에 거쳐 도합 3,605戶를 '集團移民'으로 組織했는데 그 인원수가 延邊의 여러 縣가 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했다. 日帝는 또 적지 않은 人들을 北滿과 내몽골지구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1940年에 그들은 한번에 2,810戶의 朝鮮 이주민을 強制로 북만서북부의 嫩強, 龍鎮 등지로 이주시켰다.

일제는 이런 朝鮮이주민들을 日本移住民의 '補充力量'으로 간주했는데 그 目的은 朝鮮이주민들을 자기들의 走狗와 奴僕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1937年부터 朝鮮이주민집거구에서 '皇民化'運動을 극력 벌이고 民族同化政策을 強制로 실시했다. 그러나 中國에 와서 살고 있던 朝鮮민족은 그들의 '補充力量'과 '馴服工具'로 되려하지 않았다.

44) 滿洲史研究會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1972年, pp. 150.-191.

45) 《滿洲年鑑》 등 참조.

46) 僞間島省 《1943年 統計年表》.

47) 45)와 同.

48) 國民黨東北行轅編, 《東北經濟小叢書》, 1947年版.

그들은 야마토민족의 한개 과생적 민족으로 同化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英雄的인 朝鮮民族은 자기민족의 崇高한 절개를 줄곧 지켜왔으며 民族의 生存과 獨立, 民族의 徹底한 解放을 爲하여 中國의 여러 民族과 어깨 걸고 日帝와 불요불굴의 鬪爭을 進行하여 끝내 자기민족의 解放을 맞아왔다.

‘8·15’解放後 中國東北地區에로의 조선인들의 이주가 기본적으로 結束되었다. 同時에 中國東北에서 居住하고 있던 조선이주민들 중 조선으로 돌아간 사람이 60萬명 좌우였다. 1949年 中國東北地區의 朝鮮族人口는 111萬657명이었으며<sup>49)</sup> 그 중 延邊에 居住한 朝鮮族人口는 52萬9,000명이었다.<sup>50)</sup>

## 6. 聯關性問題

19世紀 40年代부터 1945년까지의 100여년사이에 大量의 近·現代朝鮮民族成員들이 中國의 東北으로 移住했는데 이는 朝鮮(南韓과 北韓을 포괄) 歷史上의 重大한 事件일 뿐만 아니라 中韓·中朝關係史上의 重大한 事件이며 또한 中國歷史上의 重大한 事件이기도 하다.

이 時期 大量의 朝鮮民族成員들이 中國의 東北으로 移住한데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다. 그 중 移住의 直接的 原因은 朝鮮國內에 있었고 조선이주민들이 능히 中國東北으로 移住할 수 있었던 데는 中國方面에 그 原因이 있었다. 조선국내를 놓고 볼 때는 經濟方面의 原因도 있고 政治方面의 原因도 있었다. 1910年 日本이 朝鮮을 병탄하기 전의 移住는 주로 經濟方面의 原因이었고 1910年 이후에는 經濟面과 政治面의 原因이 모두 重要한 역할을 놓았다. 그러나 當時 移住한 조선 이주민들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에 조들리다 못해 移住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망

49) 東北人民政府民族事務處編, 《各種統計表》, 1950年.

50) 《國民經濟主要統計資料》 참조.

국노로 되지 않으려고 移住한 사람도 一定한 比率을 차지한다. 그 외 또 수많은 義兵將兵과 反日愛國人士들이 일본침략자의 政治迫害에 못배겨 東北으로 이주했다. 1937年 이후에는 또 일본침략자의 強制移民政策으로 하여 逼迫에 못 이겨 이주한 조선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政治面의 原因이었다. 그러나 本世紀 30年代로부터 40年代에 이르는 사이에 移住한 조선 이주민의 大多數는 의연히 살 길을 찾아 이주한 破産당한 貧苦農階層이었다.

中國方面의 原因을 볼 때 19世紀 40年代부터 淸朝政府는 東北에 對한 封禁을 늦추었으며 後에는 封禁制度를 徹底히 폐지하고 吸引力이 있는 開放政策과 優惠政策을 많이 實行하였는데 이는 客觀上에서 조선의 開墾民들이 이주하는데 便利한 條件을 마련해 주었다. 民國時期에 비록 한때 奉係軍閥이 조선 이주민을 迫害하고 驅逐하는 現象이 있었지만 總體的으로 전반 東北地區와 전반 民國時期를 놓고 볼 때 民國政府는 조선 이주민이 東北으로 移住하는데 對하여 주로 開放政策을 實施했다. 東北이 陷落한 후 조선과 東北이 모두 日帝의 殖民地로 되어버리고 게다가 日本侵略者들이 '自由移住'政策과 '強制移住'政策을 실시하였기에 조선사람들이 中國東北地區로 더욱 거침없이 移住하게 되었다.

매개 시기에 조선 이주민이 中國의 東北으로 移住하는데 있어서의 基本的인 移住形態는 다음과 같다. 封禁이 늦추어진 시기는 조선 이주민들이 封禁令을 어기고 '越江' '潛入'하던 短期的인 過境 혹은 季節的인 移住形態로부터 漸次 完全形態의 移住性格을 띤 自由移住로 이행하던 時期였으며 封禁이 폐지된 時期는 조선이주민이 自由로 移住하던 時期였으며 日帝와 위 '滿洲國'이 東北을 統治하던 時期를 보면 前期에는 조선이주민이 일본침략자의 '自由移住'政策하에서 自由로 移住하던 時期였고 後期에는 強制的移住와 非強制的移住가 並存한 時期였다.

東北에 移住한 조선이주민의 각 시기에 있어서의 연평균장성수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1845년부터 1880年사이에는 500명좌우, 1881년부터

1909年 사이에 그 前期는 數千명, 後期는 1萬명 좌우, 1910년부터 1918年 사이에는 2萬1,000명 좌우, 1919년부터 1930年 사이는 1萬7,000명 좌우, 1931년부터 1936年 사이는 4萬1,000명 좌우, 1937년부터 1945年 사이에는 近10萬명이었다. 中國朝鮮族遷入史에서 여러차례의 천입고조가 나타났는데 첫번째는 19世紀 60年代이고 두번째는 20世紀 10年代이며 세번째는 1935년부터 1944年 사이의 10년간이다. 이 10년간은 東北朝鮮移住民의 장성속도가 제일 빠른 시기였다. 1845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반 移住歷史를 놓고 볼 때 東北地區에로의 조선인들의 이주는 그친 적이 없었으며 그 인원수는 줄곧 上昇線을 그으며 늘어났다.

조선 이주민이 中國의 東北各地로 移住한 經路는 주로 세 갈래였다. 한 갈래는 압록강을 건너 먼저 東邊道에 移住한 후 그 중 一部는 南滿 서부로 이주하였고 一部는 南滿 북부, 中滿, 西滿과 北滿으로 이주하였다. 그 다음 한 갈래는 圖們江을 건너 먼저 延邊에 移住한 후 그 중 一部는 中滿, 西滿으로 移住하였고 一部는 北滿으로 移住하였다. 또 한 갈래는 沿海州 등 시베리아지구를 먼저 거친 후 烏蘇里江, 黑龍江을 건너 이주하였는데 그 중 一部는 東滿으로 移住하였고 一部는 北滿과 내몽골 등지로 移住하였다.

分布過程으로 볼 때 우선 鴨綠江, 圖們江 沿岸地區와 綏芬河流域에 分布되었고 그 다음에는 북부와 서부방향을 따라 東北內地로 移動하고 擴散되었다. 조선민족은 벼농사에 능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移住하자부터 灌溉와 벼농사에 便利한 지구를 찾아 자리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조선이주민의 村落은 大部分이 하류의 충적평원, 河谷盆地 및 河谷平原에 분포되어 있었다. 遼寧省의 조선이주민은 주로 鴨綠江, 渾河, 遼河流域 일대에 分布되었고 吉林省의 조선이주민은 주로 圖們江, 海蘭江, 嘎呀河, 布爾哈通河, 鴨綠江上, 中游, 二道白河, 牡丹江上游, 飲馬河, 遼河上游 등 크고 작은 강의 流域에 分布되었으며 黑龍江省의 조선이주민은 주로 綏芬河, 穆稜河, 牧丹江의 中류, 松花江 등 河流의 流域에 분포되

었다. 東北朝鮮移住民들 중에는 吉林省에 그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黑龍江省이고 세번째로는 遼寧省이며 내몽골에도 일부분의 조선이주민이 살고있다. 그 중 圖們江 이북지구인 延邊이 조선이주민의 가장 큰 집거주로 되었다.

原籍地에 따른 조선이주민의 분포정황을 보면 南滿地區의 조선이주민들 중에서 北韓이주민이 75% 좌우를 차지하고 南韓이주민이 25%를 차지하였으며 東滿地區에는 安圖, 敦化 두 縣에 南韓이주민이 많은 외 기타 4個 縣에 北韓이주민이 94%를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中滿과 北滿地區에는 南韓이주민이 52%를 차지했고 北韓이주민은 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北滿에서 南韓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北滿의 中部와 西部에 자리잡고 있는 哈爾濱시, 齊齊哈爾시와 송화강 지구이고 北韓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北滿東部の 牡丹江市, 佳木斯市와 鷄西市 일대이다. 상대적으로 볼 때 地理位置上에서 조선반도와 가까운 압록강 이북과 도문강이북지구에 北韓이주민이 많고 南韓이주민이 적으며 조선반도와 멀리 떨어진 중만과 북만지구일수록 南韓이주민이 많고 北韓이주민이 적는데 이것도 分布特點의 하나였다.

조선민족이 中國東北地區로 移住한 歷史는 피나리보짐에 족박을 차고 고향 떠나 이국타향으로 이주한 고난의 역사이고 또한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은 피눈물의 歷史였다. 하지만 中國의 東北으로 移住한 후 그들의 처지가 改變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生活은 예와 다름없이 착취와 壓迫, 멸시를 받는 苦難속의 生活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困難과 적들 앞에서 질겁하지 않았으며 前進道上的 온갖 艱辛고초를 극복하고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이어가면서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영용한 鬪爭을 벌여 끝내 민족의 解放을 맞아왔다.

조선민족이 중국동북지구로 이주한 것은 歷史상에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첫째, 조선민족은 중국 東北地區에 이주한 후 중국의 여러 민족과 어

깨걸고 東北의 邊疆을 開發하고 建設하였으며 가시덤불을 헤가르고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며 한전을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大面積의 수전을 일구어 東北地區의 開發, 수전기술의 광범한 普及과 東北農業經濟構造의 調節, 그리고 東北地區 農業生産量의 提高에 큰 貢獻을 하였다.

둘째, 그들은 긴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中國의 여러 민족과 함께 東北 邊疆을 保衛하고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鬭爭하는 가운데서 重大한 民族的 犧牲을 하였으며 中華民族과 朝鮮民族의 解放, 그리고 새 中國의 창건을 爲하여 重要한 貢獻을 하였다.

셋째, 조선민족이 東北地區로 이주한 후 그 중의 一部는 南韓과 北韓으로 돌아가고 大部分이 긴긴 歷史의 흐름 속에서 漸次 中國政府의 승인을 받고 中國공민권을 소유한 中國의 조선족으로 형성됨으로써 中國의 56個 民族가운데의 一員으로 되어 重大한 역할을 과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여년의 빛나는 歷史를 가지고 있다.

넷째, 조선민족이 中國東北地區에 이주함으로써 中韓·中朝關係가 歷史上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 密切해졌고 두 나라의 來往이 더 頻繁해졌고 交流가 더 친선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中韓·中朝關係의 친선 발전에 더욱 廣濶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